

## 보도자료

# 퓨어스토리지, 혁신적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비즈니스 모델 ‘포에버 플래시’ 출시

- 새 모델 ‘포에버 플래시’로 필수적 유지보수 및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불필요
- 기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판매 및 유지 모델에 대안 제시

**2014년 2월 10일** - 엔터프라이즈 플래시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퓨어스토리지 ([www.purestorage.com](http://www.purestorage.com), 지사장 강민우)가 고객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구입 및 유지보수 판도를 전환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포에버 플래시(Forever Flash™)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델은 구축 수명주기에 걸쳐 스토리지 소유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가동 중 장비 업그레이드 플랜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스토리지 다운타임이 없으며, 고비용 및 고위험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불필요하다.

사이먼 로빈슨(Simon Robinson) 451 리서치 그룹(451 Research)의 스토리지 담당 부사장은 “연구 결과, 기존의 스토리지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성이 높아 IT 관리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퓨어스토리지는 제품에 장기적인 어레이 유지보수가 설계되어 있어 기존 스토리지 판매 모델에 새로운 대안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얻을 것이라 확신하며, 업계 반응도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퓨어스토리지는 대부분의 스토리지 벤더와 같은 방법으로 플래시 어레이 및 유지 보수 서비스 계약(M&S)을 판매해왔다. 이번에 퓨어스토리지는 접근방식을 새롭게 혁신해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평생 비용과 복잡성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 고객이 최초 장비를 구입하면, 필요에 따라 스토리지 소유권 라이프스타일과 M&S 계약을 최적화할 수 있다. 포에버 플래시가 제공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매 업그레이드마다 재설정(Fresh Every Upgrade):** 용량 추가 및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토리지 어레이를 확장하려는 고객의 경우, 전체 어레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당시 첫 해 요금으로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TB를 절감할 수 있다.
- **3년마다 무료(Free Every Three):** 스토리지 바이어가 2년의 추가 유지보수 서비스를 구입해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자격을 얻은 후 4년 또는 7년차에 유지보수 계약을 연장하면, 매 3년마다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프로

그럼은 고객이 5년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사전에 구매할 수 있고, 3년차에 컨트롤러 리프레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어스토리지의 무중단 컨트롤러 업그레이드와 결합된 포에버 플래시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다운타임 없이 최신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에버 플래시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구매 시 50만 달러의 장비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업계 관행은 3~5년의 기간에 걸쳐 연간 8-15%씩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해 청구하는 것이다. 어레이가 오래될수록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하고, 고객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할지, 완전히 새로운 어레이를 구매할지, 차세대 제품을 위한 복잡한 전면적 업그레이드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계획 및 실행하는데 수주가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퓨어스토리지 포에버 플래시를 사용하면 고객은 컨트롤러를 매년 업그레이드하거나 용량을 확장할 때마다 유지보수 및 지원 비용을 "1년차" 유지보수 비용으로 재설정할 수 있다. 만일 고객이 장비 비용을 낮게 유지하고자 할 경우, '3년마다 무료' 옵션을 사용하여 매 3년마다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올 플래시 어레이 컨트롤러는 중단 없이 업그레이드되며, 가용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확장 쉘브(shelves)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까다로운 장비 업그레이드 주기가 불필요하다.

제록스 회사인 트립팩 서비스 & ACS 애드버타이징(TripPak SERVICES® & ACS Advertising)의 IT 인프라 엔지니어링 데이비드 애벗(David Abbott) 매니저는 "퓨어스토리지는 유지보수 및 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스토리지 투자 관리 방법을 전환한다"며, "우리는 이미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FlashArray)가 제공하는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명주기 관리를 개선했다. 새로운 포에버 플래시의 이점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퓨어스토리지의 스캇 디첸 Scott (Dietzen) CEO는 "플래시메모리가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업계의 판도 변화로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절감될 것이다"며, "절감의 일부는 보다 효율적인 기기를 통해 가능하며, 통제불능의 유지보수 계약과 매 3년에서 5년마다 요구되는 전면적 업그레이드 장비 교체 등의 낡은 업계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혁신적인 벤더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고객의 가용성과 퓨어스토리지 채널 파트너를 위한 정보**

포에버 플래시는 퓨어스토리지 파트너를 통해 제공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지만 참가자는 변경될 수 있다. 포에버 플래시는 수요 창출을 가속화하고, 계정 소유권을 강화하며 더 나은 수익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인티그레이티드 아카이브 솔루션(Integrated Archive Solutions)의 존 우드올(John Woodall)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포에버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다. 벤더가 아니라 고객에

게 선택권을 줘 고객은 CAPEX(설비투자비용)와 OPEX(운영비용)의 수준과 타이밍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는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에 이미 포함돼 있으며, 가격결정 모델에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당사 영업 담당자는 운영 및 자본 절감에 가장 중점을 두는 C-레벨 경영진들에게 향상된 수준의 플래시 관련 논의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고객이 IT 예산을 CAPEX에서 OPEX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높은 비용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리뉴얼의 필요성을 제거하며, 용이한 소유권 및 업그레이드 모델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장기적 가치를 전달한다"며, "비즈니스와 기술의 가치 모두를 전달하는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는 높은 고객 소속감과 파트너들에게 더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 리뉴얼 비용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

#### **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

100% 플래시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전문기업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터센터 내의 광범위한 플래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인 디스크 중심의 어레이 스토리지와 비교해, 퓨어 스토리지는 100% 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어레이로 10배 이상 빠른 속도와 10배 이상 넓은 공간, 전력 효율성을 제공한다. 고성능 워크로드를 위해 디자인된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는 서버가상화, 데스크탑가상화, OLTP 및 실시간 분석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purestorage.com](http://www.purestorag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민커뮤니케이션

신지현 차장/ 신소원 A.E

02-3495-7810 / 010-8863-1305/ 010-9075-2639

[itpr@mincomm.com](mailto:itpr@mincomm.com)